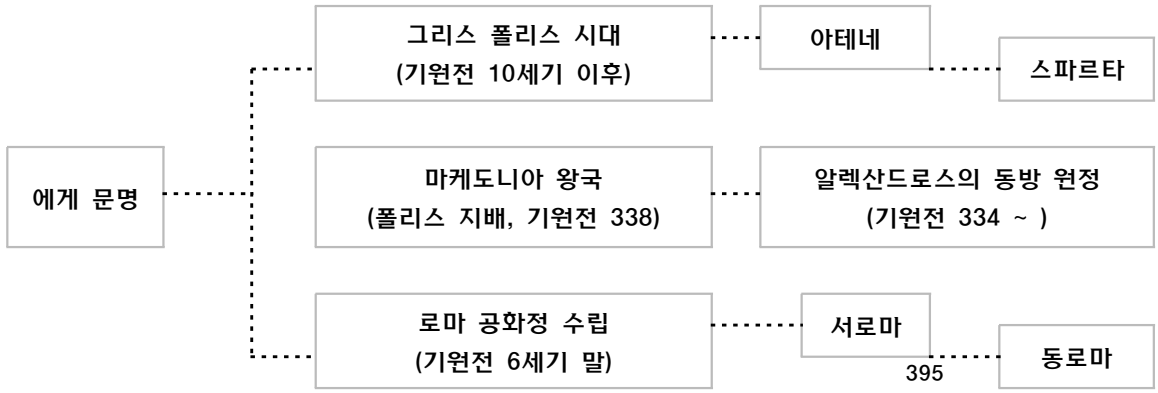
고대 지중해의 세계

▣ 고대 지중해 세계의 발전



[에게 문명(Aegean civilization)]

〈에게 문명〉

01. 성격

- 해양 청동기 문명
- 오리엔트 문명의 그리스 전달
- 그리스 문명의 모태

02. 전기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 기원전 2000년 경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중심
- 평화적
  : 밝고 생동감 넘침
- 강력한 왕권
-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번성
- 크소노스 궁전(Knossos Palace)

03. 후기 미케네 문명

- 기원전 14세기 경 미케네인 남하 → 크레타 문명 파괴
- 미케네, 트로이, 티린스를 중심으로 도시 왕국 형성
- 상무적(尙武的) 문화 → 영웅 서사시 구전
- 기원전 12세기 경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 → 암흑시대 지속

고대 지중해 세계 -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폴리스(Polis)의 탄생과 발전]

01. 성립

- 산지 지형, 토지 척박, 교통이 불편하여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 형성 곤란
  ↳ 촌락 공동체 내의 교역 증대, 방위 필요성의 증가 → 기원전 10세기경 도시 국가 형성

02. 구조

- 아크로폴리스(종교·군사적 거점, 신전 건축, 유사시 피난처)
- 아고라(광장, 집회·상거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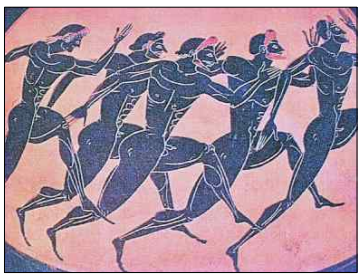
03. 특징

- 정치적으로 독립된 폐쇄적 공동체
- 그리스 인의 동족의식
  : 헬레네스(헬렌의 후손) ⇔ 바르바로이(야만인)
  : 동일한 언어, 도시 국가 간 동맹 결성
- 올림피아 제전 개최

〈고대 그리스의 세계〉

04. 식민 활동

- 기원전 8세기 후반 ~ 기원전 6세기경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경작지 부족으로 활발한 대외 진출
  : 흑해, 지중해 연안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지중해 해상권 장악



〈올림피아 제전〉

[★아테네(Athens, 아티카 반도) 민주 정치의 성장]

01. 귀족 정치

- 귀족의 전쟁 비용 담당 → 정치적 실권 행사

02. 평민의 성장

- 상공업 발달 → 평민의 경제적 지위 신장
- 평민 중장 보병이 군대의 주력 형성 →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귀족과 대립

03. 솔론(Solon, 기원전 630 ~ 기원전 560)의 금권 정치

- 조정자와 아르콘(집정관)으로 선임, 재산 소유 정도를 반영하여 시민의 참정권 차등 분배(4등급)
- 귀족과 평민의 불만과 대립 고조

04.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 기원전 600 ~ 기원전 527)의 참주(僭主, Tyrannos) 정치

- 솔론의 국법 준수, 빈농 보호 조치
- 올림포스 신전과 아테네 신전 건축

[★아테네(Athens) 민주 정치의 성장]

05.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 기원전 570 ~ 기원전 508)의 개혁

〈도편 추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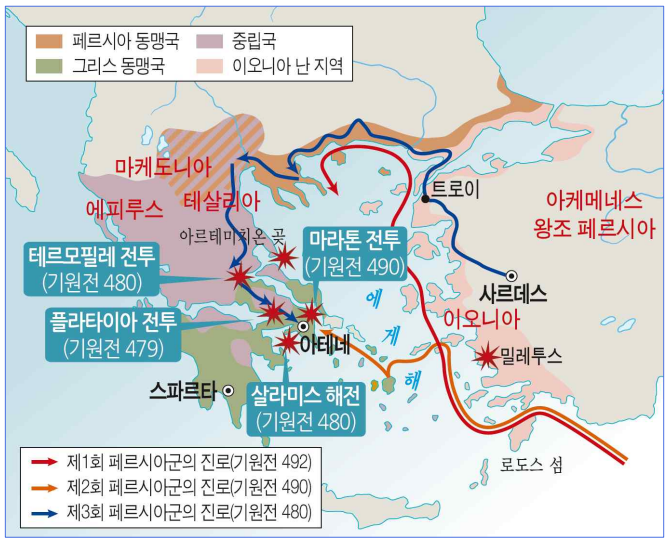
- 아테네 민주 정치의 기틀 마련
- 부족제의 개편
  : 혈연 중심 ⇨ 거주지 중심
  : 데모스(Demos)에 따라 30개 구역[시내(10), 해안(10), 내륙(10)]으로 구분
  ↳ 각각 한 구역씩을 조합하여 총 세 구역을 각 부족에게 추첨으로 할당
- 500인 평의회 설치
- 참주(僭主)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 실시

06.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 ~ 기원전 479)

1) 배경
- 기원전 6세기 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팽창
  : 아나톨리아(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 압박 → 아테네의 그리스 식민 도시 지원

2) 경과
- 페르시아의 침입과 그리스 세계의 단결
  : 마라톤 전투(기원전 490년)
  : 테르모필레 전투(기원전 480년)
  : 살라미스 해전(기원전 480년)
- 아테네,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연합 승(勝)

3) 영향
- 아테네의 번영
  : 델로스 동맹(Delian League)의 맹주
  :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
- 참전 시민들의 발언권 강화
  : 민주 정치의 발전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

07. 페리클레스 시대(Perikles, 기원전 495 ~ 기원전 429)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
  : 모든 성년 남자 시민이 민회 참석 → 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여자, 거류 외국인, 노예 제외)
- 민회에 참가하는 시민에게 공무 수당 지급(수당제)
- 장군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과 배심원(시민 재판소)을 추첨으로 임명(추첨제)
-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하여 파르테논 신전 건설(기원전 438) → 스파르타와의 대립 격화

고대 지중해 세계 -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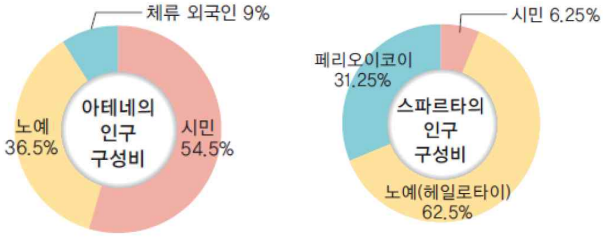
[★스파르타(Sparta)]

01. 성립

- 소수의 도리스인(Dorians)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폴리스 형성
-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사회

02. 강력한 군사 통치 체제

- 군국주의적 귀족 정치
- 다수의 피지배층 제압
  : 헤일로타이(예속 농민) → 농업 종사
  : 페리오이코이(반자유민) → 상공업 종사
- 교육
  : 모든 남자 시민(7 ~ 30세)에게 공동체 생활과 엄격한 군사 훈련 실시
  : 아고게(agoge, 공교육 제도)
  : 파이도노모스(paidonomos, 교사)
  ↳ 용감한 시민 전사 양성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

[폴리스의 쇠퇴]

01.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기원전 431 ~ 기원전 404)

1) 배경
- 폴리스 간 반목
  : 델로스 동맹(아테네 중심) ⇔ 펠로폰네소스 동맹(스파르타 중심)

2) 전개
- 전쟁 초기에 페리클레스 사망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중우(衆愚) 정치 전락
-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델로스 동맹 해체
- 스파르타의 패권 장악

> 우리 정치는 소수의 독점을 배제하고 권력을 다수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민주 정치라 불린다. ……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비인간적 군사 훈련을 통해 용기를 함양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
>
> -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사

02. 스파르타 시대(기원전 404 ~ 기원전 371)

- 공동체 의식 붕괴로 폴리스 간 반목과 갈등 지속
- 아테네, 코린트(Corinth), 아르고스(Argos) 등이 반(反) 스파르타 전선(코린트 동맹) 형성

03. 테베(Thebes) 시대(기원전 371 ~ 기원전 338)

- 테베의 스파르타 격파
-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기원전 359년 ~ 기원전 336년)의 테베 정복 → 폴리스 지배(기원전 338)

고대 지중해 세계 -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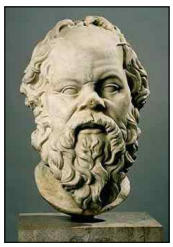
[그리스의 문화]

01.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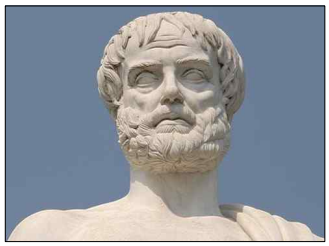
- 고전 문화, 인간 정신이 구현된 자유로운 시민 중심의 문화
- 인간 중심적[anthropomorphism,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 현세 긍정적, 합리적, 독창적

02. 철학

- 자연 철학(기원전 6세기 경 이오니아 지방)
  : 우주와 만물의 근원에 대한 탐구, ex) 탈레스(Thales)·피타고라스(Pythagoras)
- 소피스트(Sophist, 기원전 5세기 경)
  : 직업 교사,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림,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 주장, 회의적 사고
- 소크라테스(Socrates, 기원전 470 ~ 기원전 399)
  : 소피스트에 맞서 보편적이고 절대적 진리를 주장
- 플라톤(Plato, 기원전 427 ~ 기원전 347)
  : 이상 국가 구상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 ~ 기원전 322)
  :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03. 문학

- 호메로스, 『일리아스』·『오디세이아』 → 트로이 전쟁 주제, 영웅과 신들의 세계를 노래
- 헤시오도스, 『노동과 나날』(노동의 신성함 강조)·『신통기』(올림포스 신들의 계보 작성)

04. 연극

- 소포클레스(비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희극 작가, 『개구리들』)

05. 역사

- 헤로도토스, 『역사』(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서술) → '역사(학)의 아버지'
- 투키디데스, 『역사』(펠로폰네소스 전쟁 서술) → 비판적 역사 서술의 모범

06. 종교

- 다신교, 제우스를 비롯한 12신 숭배
- 인간적 모습의 신(神) → 문학과 예술의 원천

07. 미술

- 조화와 균형의 미 추구
- 신전 건축, 장식 조각 발달
  : 파르테논 신전(도리아 양식)
  : 아테나 여신상, 원반 던지는 사람(미론)

〈파르테논 신전(기원전 438)〉

〈아테나 여신상〉

개념 Check

❶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에서 (　　)는 종교적 거점이자 군사적 거점이었다.
❷ (　　)은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구분하고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였다.
❸ 클레이스테네스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　　)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하고,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였다.
❹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 (　　)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성장하였다.
❺ 페리클레스 시대에 (　　)는 권한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❻ 아테네의 민주정은 여성, 거류 외국인, (　　)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❼ (　　)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❽ 진리의 상대성을 추구한 소피스트에 맞서 (　　)는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 (가)은(는) 혈연 중심의 네 개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열 개 부족으로 재편하였다. 이후 각 부족에서 50명씩 선발하여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 (나)은(는) 공무 수당을 지급하고 주요 관직과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하여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였다.

① (가) - 호민관직을 설치하였다.
② (가) -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③ (나) -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였다.
④ (나) -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
⑤ (나) -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02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아테네는 에게 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에게 동맹의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시민들이 출병하길 싫어하여 금전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였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게 되었고 동맹국들을 더욱 압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테네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코르키라와 동맹을 맺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일부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① 라티푼디움이 확산되었다.
②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③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④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정을 수립하였다.
⑤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였다.

▣ 아테네의 정치 변화

왕정

⇩

귀족 정치

- 중장보병의 발언권 강화(= 유산 시민)

⇩

금권 정치

- 솔론(기원전 630 ~ 기원전 560)의 개혁
  :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참정권의 차등 분배 주장

⇩

참주 정치

- 페이시스트라토스(기원전 600 ~ 기원전 527)의 참주 정치

⇩

민주 정치의 시작

- 클레이스테네스(기원전 570 ~ 기원전 508)
  : 도편 추방제, 부족제의 개편, 500인 평의회 설치

⇩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

- 기원전 492 ~ 기원전 479
- 그리스 연합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 지중해 해상권 쟁탈
-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

페리클레스 시대

- 민주주의 정파의 지도자(기원전 461 ~)
- 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의 완성 → 민주정의 전성기
  ↳ 참정권의 제한(여자, 노예, 외국인 등 제외)
- 공직 관리와 재판관 선출의 추첨제와 윤번제
- 파르테논 신전 완성(기원전 438)

⇩

펠로폰네소스 전쟁

- 페리클레스,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 운영
  ↳ 델로스 동맹 기금 금고의 아테네 이전, 동맹 기금 이용 신전 건축
- 델로스 동맹 ⇔ 펠로폰네소스 동맹 → 스파르타의 패권 차지

▣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	스파르타
위치	해안	내륙
산업	해상 교역 → 해군력 증강	농업 중심
정치	민주정치	군국주의
노예	소수 개인 노예	다수 국유 노예
동맹	델로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

▣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 ~ 기원전 404)의 원인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은 에우보이아(euboia) 점령 이후에 체결된 30년 평화 조약을 깨고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평화 조약을 깬 이유와 관련하여 나는 이미 그들이 내세우는 불만의 원인과 논쟁을 기록하였으므로, 누구도 그렇게 큰 전쟁이 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발발했는지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별로 언급된 바 없으나, 나는 전쟁이 발발한 가장 진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아테네가 강력해지자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 투키디데스, 『역사』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기원전 334 ~ 기원전 31)]

01. 성립

- 마케도니아의 성장
- 필리포스 2세 때 페르시아 원정 계획
-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기원전 334 ~)

: 이소스(Issus) 전투로 페르시아 정복, 이집트 점령, 인더스 강 유역 진출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제국 건설

〈알렉산드로스 제국〉

02. 발전

- 동방(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제 도입
- 동·서 융합 정책 추진

: 알렉산드리아 건설 → 그리스 인의 이주, 페르시아 인과 결혼 장려

: 무세이온(학문의 전당 겸 도서관) 건설

03. 분열

- 알렉산드로스 사후(BC. 323)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
- 악티움 해전(BC. 31) → 로마의 이집트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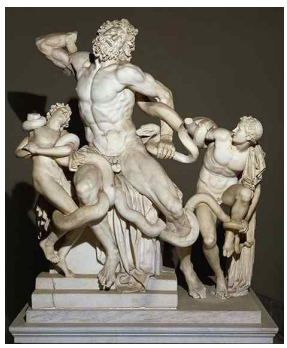
[★헬레니즘 문화]

01. 세계화한 그리스 문화

-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오리엔트 문화와 활발히 교류(동·서 융합)
-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오크 등이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 폴리스의 애국주의 탈피 →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 헬레니즘 미술 →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

02. 현실 도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철학 발달

- 스토아학파(금욕주의, 이성적인 삶 추구)
- 에피쿠로스학파(정신적 쾌락주의, 마음의 안정과 만족 추구) → 미술에 영향



〈라오콘 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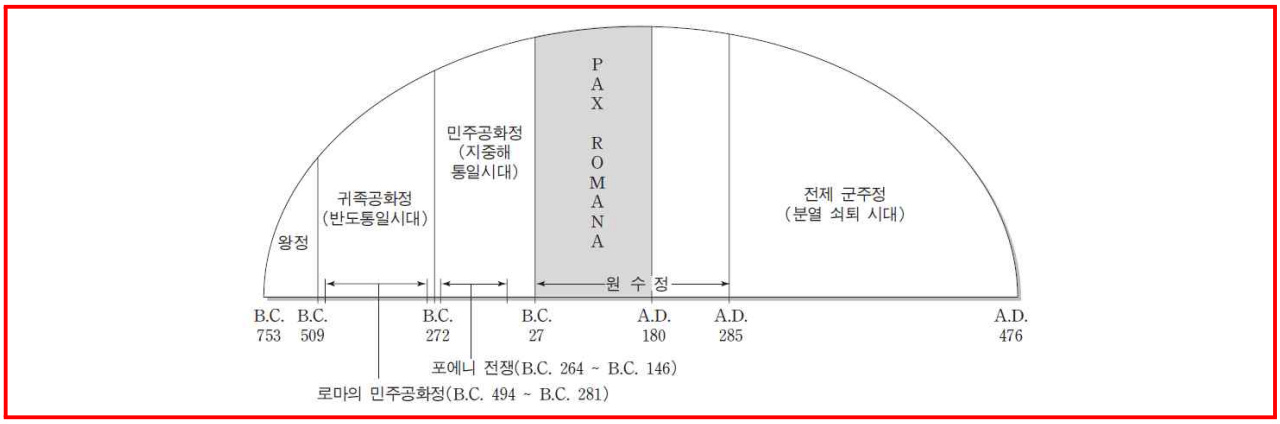
03. 천문학, 수학, 의학(해부학) 등 자연 과학 발전

- 에우클레이데스(=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부력의 원리), 아리스타르코스(태양 중심설)

04. 예술

- 사실적·관능적 → '밀로스 섬의 비너스 상', '라오콘 군상', '니케 상'

로마의 발전과 지중해 세계



[★로마(Rome)의 건국과 발전]

01. 건국

〈로물루스와 레무스〉

- 기원전 8세기 경 이탈리아 중부의 라티움 지방 테베레 강가
- 초대 왕 로물루스가 건국

02. 발전

1) 왕정

- 후기 → 에트루리아(現 토스카나) 출신 왕의 지배

2) 공화정

-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수립
-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 → 원로원(Senatus)과 집정관(Consul)의 정치권력 독점
  : 원로원(최고 의결 기관, 실질적 지배 기구)
  : 집정관(최고 행정관, 원로원에서 2명 선출, 임기 1년)
- 평민권의 성장(기원전 5세기 ~ 기원전 3세기)
  : 상공업 발달 ⇨ 중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 담당 ⇨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에 대한 불만 표출
- 대내적으로 정치 투쟁(공화정의 민주화), 대외적으로 정복 사업 진행

법률	내용
제1차 성산 사건(BC. 494)	• 평민 군대가 성산(聖山, 몬스사케르)에 모여 농성 → 귀족들의 평민 요구 수용
호민관 설치(BC. 494)	•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정원 10명, 임기 1년) • 호민관 → 집정관 등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평민회 설치(BC. 472)	• 평민들의 권익 단체
12표법(BC. 450)	• 로마 최초의 성문법, 귀족의 자의적인 법 집행 방지
리키니우스 법(BC. 367)	•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
호르텐시우스 법(BC. 287)	• 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국법으로 인정
	• 평민회의 정식 회의 인정
	• 평민이 법률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 획득

로마의 발전과 지중해 세계

[★로마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18 ~ 기원전 201)〉

01. 로마의 팽창

1) 이탈리아 반도 통일(기원전 272)
- 중장보병 주도

2) 포에니(페니키아인) 전쟁
- 지중해 해상권 경쟁(⇔ 카르타고)
- 제1차(기원전 264 ~ 기원전 241) ⇨ 제2차 ⇨ 제3차(기원전 149 ~ 기원전 146)
- 한니발 ⇔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 로마의 승리, 서부 지중해 차지

〈한니발(BC. 247 ~ 183)〉

3) 동방으로 세력 확대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정벌, 소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여 지중해 대부분 지배
- 속주(프로빈키아)에 총독(프로콘술)을 파견하여 통치

02. 포에니 전쟁 이후 공화정의 변화(공화정의 위기)

1) 사회·경제적 변화
- 유력자들이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라티푼디움) 경영 확대 → 신(新) 귀족층 대두
- 자영농의 몰락
  : 대외 팽창 과정에서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지 황폐화
  : 속주에서의 값싼 곡물과 노예 유입
  : 몰락 농민의 로마 집중과 군사력의 약화
- 헬레니즘 문화 유입 → 향락적 사치 풍조 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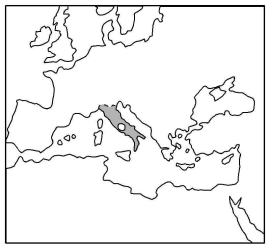
〈그라쿠스 형제〉

2)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기원전 133 ~ 기원전 123 ~ 기원전 121)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농지법 제정(유력자들의 대토지 점유 제한)
- 가이우스 그라쿠스, 곡물법 제정(빈민들에게 값싼 곡물 제공)
- 원로원과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실패
  : 벌족파(귀족, Optimates) ⇔ 평민파(민중, Populares) ⇨ 정치적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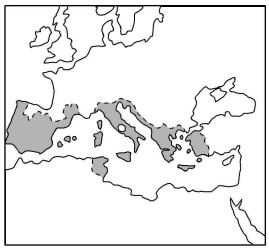
3) 동맹시 전쟁과 노예 반란
-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로마 시민권 요구 → 동맹시 전쟁(기원전 91 ~ 기원전 88) → 로마의 승리
- 검투 노예 스파르타쿠스의 난(기원전 73) → 크라수스(기원전 115 ~ 기원전 53)의 진압

4) 마리우스와 술라 등 군인 정치가의 대립과 삼두 정치의 전개
- 제1차 삼두 정치(카이사르·폼페이우스·크라수스, 기원전 60 ~ 기원전 45)
- 제2차 삼두 정치(옥타비아누스·안토니우스·레피두스, 기원전 43 ~ 기원전 31)
  : 악티움 해전(기원전 31), 옥타비아누스의 안토니우스 격파 ⇨ 원수정(元帥政, 프린키파투스)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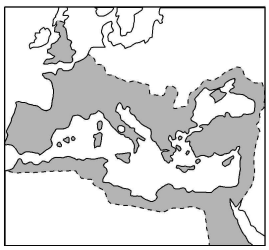
로마의 발전과 지중해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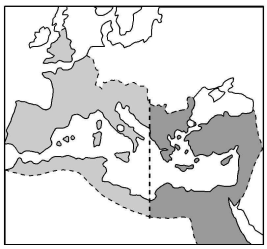
기원전 264년



기원전 146년 이후



117년 이후(최대 영역)



395년(동 · 서 분열)

[★제정의 성립과 쇠퇴]

01. 제정의 시작과 평화 시대

- 옥타비아누스(재위 기원전 27 ~ 기원전 14)

: 악티움 해전 승리 → 프린켑스(제1 시민) 자처

: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의 칭호 획득(기원전 27)

↳ 군대 통수권과 재정 관리권 장악

: 종신 집정관의 권한(기원전 19) → 대제사장(기원전 12)

- 로마의 평화 시대(Pax Romana, 기원전 27 ~ 기원후 180)

: 5현제 시대(96 ~ 180)

↳ 네르바 ~ 트라야누스 ~ 하드리아누스 ~ 안토니누스 피우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정치적 안정, 최대 영토(트라야누스 황제, 재위 98 ~ 117) 확보

: 도로 · 화폐 · 도량형 정비, 상공업 발달, 도시 중심의 경제적 번영, 동서 교역 발달

02. 제국의 쇠망

1) 군인 황제 시대(235 ~ 284)

- 이민족(게르만,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입과 속주의 반란
- 속주 군단 사령관의 황제 추대로 군대의 정치 개입
- 전쟁과 약탈 → 농촌 피폐, 도시와 상공업 쇠퇴, 중산층 자유 시민 몰락
- 콜로누스(colonus, 부자유 소작인)를 통해 토지를 경작하는 콜로나투스(colonatus) 제도 성행

2) 중흥 노력

-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재위 284 ~ 305)

: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수습, 전제 군주제 도입, 4제 통치 체제(정제 · 부제 각 2인), 군대 장악

- 콘스탄티누스 황제(재위 306 ~ 337)

: 크리스트교 공인(밀라노 칙령, 313),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330), 군주제 강화

- 테오도시우스 황제(재위 379 ~ 395)

: 크리스트교의 국교 인정(392), 사후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395)

3) 멸망

- 서로마 제국 → 수도 로마,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의 침입으로 멸망(476)
- 동로마 제국 →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오스만 튀르크 메(흐)메트 2세의 침입으로 멸망(1453)

로마의 문화

01. 특징

- 그리스 문화 + 헬레니즘 문화 + 로마 문화 → 서양 고전 문화의 완성
- 법률, 도시 설계,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문화 발달
- 학문, 예술은 그리스·헬레니즘 문화 모방

> - 모든 고대의 역사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처럼 로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으며, 모든 근대의 역사는 로마로부터 다시 흘러 나왔다. - 랑케
>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 - 로마는 세 번 세계를 통일하였다. 최초는 무력으로, 다음은 종교로, 그리고 마지막은 법률로 - 예링
> - 토인비는 로마 문화를 그리스 문화와 합쳐 '헬레닉(Hellenic) 문명'이라 하였다.

02. 법률(개인 간의 문제나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발전

- 12표법(관습법의 성문화) ⇨ 시민법(로마 시민) ⇨ 만민법(3세기 초 제국 전역의 자유인에게 시민권 부여)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 529 ~ 565]

03. 제국의 통일성 유지

〈콜로세움〉

- 도로망 건설
  : 물자 교류와 신속한 군사적 행동 → 아피아 가도(로마 ~ 카푸아)
- 로마에 대한 충성심 확보
  : 상하수도, 공중목욕탕, 콜로세움(원형 경기장) 등 제국 전역에 확산
- 바실리카(집회소), 수도교(수도 시설)
- 개선문

〈아피아 가도〉

04. 철학과 역사

- 철학
  : 스토아(Stoa) 철학이 상류층에서 유행
- 역사
  : 『로마사』(리비우스), 『게르마니아』(타키투스), 『갈리아 전기』(카이사르), 『영웅전』(플루타르코스)

05. 문학

- 그리스의 영향
- 산문
  : 키케로(기원전 106 ~ 기원전 43)의 『국가론(De republica)』, 『법률론』, 『의무론』
- 서사시
  : 베르길리우스(기원전 70 ~ 기원전 19)의 『아이네이스(Aeneis)』

06. 자연 과학

-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天動說, = 지구중심설)

크리스트교의 등장과 확산

01. 성립

-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인의 메시아(구세주) 출현 고대
- 예수의 등장 → 유대교의 배타적 선민사상과 율법주의 배격, 보편적 사랑과 평등 설교 → 예수 처형

02. 확산

- 베드로, 바울로 등의 선교 활동 → 로마 제국 내 전파

〈카타콤〉

03. 탄압

- 네로 ~ 디오클레티아누스
- 황제 숭배 거부, 군대 복무 거부, 로마의 다신교적 전통 → 박해
  : 카타콤(catacomb)에서 예배를 통해 교세 확장

04. 공인과 교리 확립

- 밀라노 칙령(313)
  :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의 협의 → 크리스트교 공인
- 니케아 공의회(325)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소집, 최초 종교 회의
  :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 교리로 채택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
  : 교회 명칭 → 가톨릭교회

>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일체'를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아리우스는 '아버지인 신과 아들인 예수는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때 추방된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족에게 전파되었다. 또한 431년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고된 네스토리우스파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전파되었다.

- 테오도시우스 황제(재위 379 ~ 395)의 국교 선포(392)
- 교리 체계화
  : 아우구스티누스(354 ~ 430)의 『신국론』 → 크리스트교적 세계관 확립

05. 의의

-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요한 토대 형성

> ▣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
> 유대교와 크리스트교는 모두 여호와를 숭배하는 일신교이다. 유대교에서 신의 구제는 이스라엘인에게만 내려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크리스트교는 신을 최후의 심판자로서보다는 절대적 사랑을 베푸는 자로 인식하고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극복하여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크리스트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 공화정 말기의 변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 기원전 133 ~ 기원전 121
- 농지법(티베리우스 그라쿠스)과 곡물법(가이우스 그라쿠스) 제정

⇩

동맹국의 반발과 노예 반란
- 동맹시 전쟁(기원전 91 ~ 기원전 88)
- 스파르타쿠스의 난(기원전 73 ~ 기원전 71)

⇩

제1차 삼두정치
- 카이사르(기원전 100 ~ 기원전 44) 주도
  : 갈리아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 원로원을 무시한 독재 정치 → 암살

⇩

제2차 삼두 정치
- 기원전 43 ~ 기원전 31
- 악티움 해전(기원전 31) → 옥타비아누스(기원전 63 ~ 기원후 14)의 승리

⇩

원수정
-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칭호 → 제정의 시작(기원전 27)

▣ 제정의 발전과 쇠퇴

Pax Romana
- 기원전 27 ~ 기원후 180
- 로마의 평화 시대

⇩

5현제 시대
- 96 ~ 180
- 트라야누스 황제(재위 98 ~ 117) → 최대 영토 확보

⇩

군인 황제 시대
- 세베루스 왕조(193 ~ 235) 이후 군대가 황제를 옹립
- 50년 간(235 ~ 284) 26명의 황제 난립 → 정치 혼란과 물가 상승
- 콜로나투스 제도[부자유 소작인(콜로누스)을 이용한 농장 경영]

⇩

디오클레티아누스
- 재위 284 ~ 305,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수습
- 4분 체제[Tetrarchy, 아우구스투스(2명) · 카이사르(2명)] 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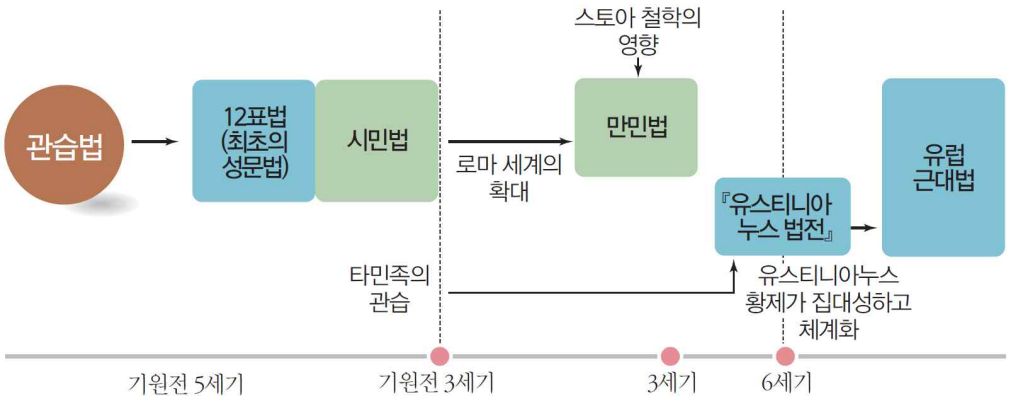
⇩

콘스탄티누스
- 재위 306 ~ 337
- 밀라노 칙령[313, cf) 5호 16국 시대(304 ~ 439)], 니케아 공회의(325)
- 콘스탄티노플리스 천도(330)

⇩

제국의 분열(395)
- 서로마 → 게르만 용병대장에 멸망(476)
- 동로마(비잔티움) → 오스만 제국에 멸망(1453)

▣ 로마법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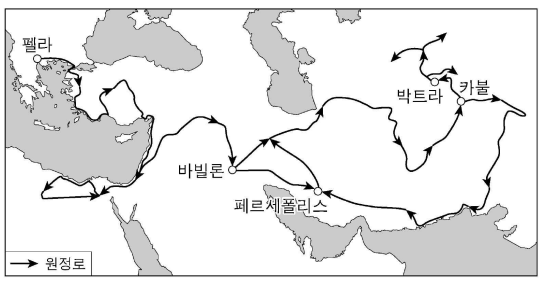
개념 Check

❶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　　)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❷ 헬레니즘 미술은 북인도까지 전파되어 (　　) 양식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❸ 로마의 공화정은 집정관, (　　), 민회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였다.
❹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세 차례에 걸친 (　　)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❺ 자영농이 몰락하고 (　　) 경영이 확대되자, 그라쿠스 형제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❻ 공화정 말기 로마에서는 원로원과 민회를 배제한 채 3명의 실력자가 동맹하여 권력을 독점하는 (　　) 정치가 행해졌다.
❼ (　　)는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❽ (　　)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 등 제국의 부흥을 꾀하였다.
❾ 로마 문화는 (　　),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분야가 발달하였다.
❿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르러 (　　)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유형 CHECK!!

01

다음 원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2021-9월 모의평가]



	(가)	(나)	(다)	(라)	(마)	
로마 공화정 수립		마라톤 전투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제2차 포에니 전쟁 발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로마 제정 성립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2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2020-9월 모의평가]

> (가) 황제는 한 사람이 통치하기에 제국이 너무나 방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막시미아누스와 함께 제국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그럼에도 제국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두 황제는 아래에 각각 부황제를 두었다.
> (나) 황제는 자신의 통치를 받는 모든 로마인과 속주민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종교를 믿을 것을 명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는 자는 신의 벌을 받을 뿐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공포했다.

① 밀라노 칙령이 공포되었다.
② 제2차 삼두정치가 시작되었다.
③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일어났다.
④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편찬되었다.
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다.

서양 고대사 개관

시대	시대 특징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그리스	① 폴리스(Polis, 폐쇄적 공동체, BC. 10세기) : 아크로폴리스(종교 · 군사), 아고라(집회 · 상거래) ② 부유해진 평민이 중장보병으로 군대의 주력 형성 : 정치적 권리 요구 → 솔론의 개혁 : 아테네 민주 정치의 기틀 마련 → 클레이스테네스 ③ 스파르타(도리스인)의 군사 통치 체제 ④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BC. 492 ~ BC. 479) :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의 침입 격퇴 :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페리클레스) ⑤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 ~ BC. 404) : 델로스 동맹 ⇔ 펠로폰네소스 동맹(勝) ⑥ 테베 시대	① 동족 의식 : 헬레네스, 동일한 언어 사용 : 올림피아 제전, 도시 간 동맹 ②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 문화 ③ 호메로스, 『일리아스』 · 『오디세이아』 각종 비극과 희극 ④ 파르테논 신전(아테나 여신, BC. 438) ⑤ 자연철학(BC. 6세기, 만물의 근원 탐구) ⑥ 소피스트(BC. 5세기, 진리의 상대주의) ⑦ 소크라테스(보편적 · 절대적 진리) 플라톤(이상 국가), 아리스토텔레스(논리학) ⑧ 『역사』(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헬레니즘	① 알렉산드로스 제국(BC. 334 ~ BC. 31) ② 동방원정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정복, 이집트 점령, 인더스 강 유역까지 진출 ③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 수용, 원주민의 문화 존중 ④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여 그리스인 이주 ⑤ 동 · 서 융합 정책(페르시아인과 혼인 장려)	①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오리엔트 문화 융합 ② 세계 시민주의 ③ 스토아학파(금욕), 에피쿠로스학파(마음 안정) ④ 사실적 · 관능적(라오콘 군상, 비너스 상) ⑤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 자연 과학 발전 ⑥ 쿠샨 왕조의 간다라 미술 성립에 영향
로마	① 도시 국가 건설(BC. 8세기) ⇨ 왕정 ⇨ 귀족 공화정(BC. 6세기, 원로원 · 집정관) ② 중장 보병으로 활약한 평민의 발언권 신장으로 공화정의 민주화 : 호민관(BC. 494) ⇨ 평민회(BC. 472) ⇨ 12표 법(BC. 450) ⇨ 리키니우스 법 ⇨ 호르텐시우스 법 : 이탈리아 반도 통일(BC. 272) : 포에니 전쟁(BC. 264 ~ BC. 146) 이후 공화정의 위기 → 라티푼디움 성행과 자영농의 몰락 ③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BC. 133 ~ BC. 121) → 벌족파와 평민파의 대립 격화 → 정치적 혼란 ④ 동맹시 전쟁(BC. 60 ~ BC. 31), 스파르타쿠스의 난(BC. 73 ~ BC. 71) ⑤ 삼두 정치(BC. 60 ~ BC. 31) : 제1차 ⇨ 카이사르 독재 ⇨ 제2차 ⇨ 악티움 해전(옥타비아누스 ⇔ 안토니우스, BC. 31) ⑥ 제정 수립(아우구스투스, BC. 27 ~) ⇨ Pax Romana(로마의 평화 시대)와 5현제 시대 ⑦ 군인 황제 시대(235 ~ 284) → 게르만 ·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침입, 속주 반란, 콜로나투스 제도 ⑧ 중흥 노력 ⅰ) 디오클레티아누스 : 군인 황제 시대 수습, 군대 통수권 장악, 전제 군주제 확립, 4제 통치 체제 ⅱ) 콘스탄티누스 : 밀라노 칙령(313), 니케아 공의회(325),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330) ⅲ) 테오도시우스 : 크리스트교 국교 선포(392) ⑨ 동 · 서로마의 분열(395) → 서로마는 게르만에 멸망(476), 동로마는 오스만에 멸망(1453) ⑩ 문화 ⅰ) 그리스 · 헬레니즘 양식 모방, 보편적 세계 문화 ⅱ) 법률, 토목, 도로, 건축 등 실용적 문화 발달 : 12표법(BC. 450) ⇨ 시민법 ⇨ 만민법(212) ⇨ 로마법 대전(529 ~ 565) : 아피아 가도, 콜로세움(원형 경기장), 판테온(신전), 수도교, 개선문, 공중목욕탕 등 ⅲ) 플루타르코스(『영웅전』), 카이사르(『갈리아전기』), 리비우스(『로마사』), 키케로(산문), 베르길리우스 ⅳ) 상류층에 스토아 철학 유행 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